

# 해업과 수산시스템의 관계에 대한 추구



사에키 키미야스(佐伯公康)  
독립행정법인 수산종합연구센터 수산공학연구소  
수산토목공학부 연구원

‘수산공학연구소’는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확보와 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토목공학기술,  
어업생산기술, 조사계획기술 등의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많은 연구과제의 하나로서  
생활기능, 관광기능과 수산업의  
공존을 위한 시설설치의 연구를  
진행하면서 어항공간의 효과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있다.  
자원, 유통, 가공 등 다양한  
요소로부터 형성되는 수산업의  
전체상을 파악하여 시스템의 개혁에  
의한 지역진흥을 도모하고 있다.

## 1. 어항공간이용의 변화

근대적인 어항이 출현하기 전, 일본의 어촌은 천연적인 지형을 활용하여 안전하게 배를 계류하고 보관할수 있는 곳에 형성되어 해변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며 작업, 가사, 축제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용되었다.

태평양전쟁 후, 식량확보를 위하여 수산업이 중요시되면서 나라의 정책에 의하여 전국 각지의 해안선의 어항이 정비되었으나 20세기 후반 국제적인 어업 규제, 수질악화, 수입수산물의 증가 등에 의해 수산업의 생산량은 저하되고 어업인은 감소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의해 어항공간의 이용 상황이 변화된 두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다.

일본의 동북지방에 있는 인구 24만명의 아오모리 하치노헤시는 긴 역사를 가진 수산도시이다. 20세기 전반, 어항정비를 추진하여 해안에는 3개의 어시장이 형성되었고 현재 연간 16만 톤의 수산물을 양륙하는 수산가공업이 번성하고 있다. 이



하치노헤시의 이용이 감소된 어시장

중 오래된 어시장의 취급량이 감소되었으나 어패류가 풍부하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방문이 늘고 있어 어시장의 활기를 되찾기 위한 방법을 모색 중이다.

현재에는 연간 16만 톤의 수산물에 양륙되며 수산 가공업도 번성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3개중 낡은 어시장에서는 취급량이 감소되고 그 근처의 상점가의 떠들썩한 분위기도 많이 저하되고 있다. 한편, 이 도시의 내륙부, 신간선(新幹線)역의 부근에는 새로운 종합시장이 있으며 그곳에는 어패류가 풍부하여 많은 관광객과 지역주민을 끌어들이고 있다. 수산 도시로서의 떠들썩한 분위기가 해변으로부터 내륙부로 이동된 느낌이다. 지역주민들은 한번 더 그 떠들썩한 시장분위기를 되찾을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 국도변의 어항인 호타어항에서는 1995년부터 어업협동조합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식당을 경영하고 있다. 정치망, 채낚기, 자망 등으로 잡은 물고기를 회, 해물찜, 생선구이로 제공하는 소박한 메뉴가 인기를 끌고 있다. 식당 바로 옆에는 수산가공품 판매소도 있어 주말이면 자동차 100대 이상이 몰릴 정도로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 주차장을 마련하였지만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동차는 차도와 호안에도 주차하고 있다.



하치노헤시 내륙부의 떠들썩한 종합시장

어항은 수산업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지만 이처럼 이용도가 저하되어 주변지역의 활력 저하를 초래하거나 주차장이 부족할 정도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사례는 일본의 다른 어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2. 수산업시스템에 있어서의 어항의 기능

지역수산업의 전체적인 구조는 물류를 축으로 한 해역으로부터 소비까지의 시스템으로 연결시켜 볼 수 있다. 그 개략도는 아래와 같이 표시한다. 시스템에 있어서 어항은 바다와 육지를 연결시키는 접점이다. 현재의 일본수산물유통은 어장으로부터 어항을 경유하여 도시로 향하는 대량 그리고 신속한 물류가 주류로 되어 있다. 그 때문에 시간단축, CO<sub>2</sub> 배출량 경감 등의 관점으로부터 적절한 기능을 가진 어항이 적절한 위치에 배치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한편 도시를 향하는 물류와 달리 지역진흥에 이바지하는 유통을 모색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연안에 서식하는 소량다품종의 어류를 신선한 상태로 지역내에 유통시킴으로써 그 지역특유의 음식문화가 계승되고 건전한 지역진흥이 실현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의 어항은 사람들이 물고기를 구입할 수도 있고 신선한 물고기를 즐길 수도 있는 장소로서의 이용을 기대할 수 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에 의해 어항은



호타어항의 떠들썩한 판매소



호타어항의 자동차가 많이 주차하는 어항


다종다양한 「해업(海業)」의 거점, 더 나아가서는 지역에 있어서의 교류문화의 거점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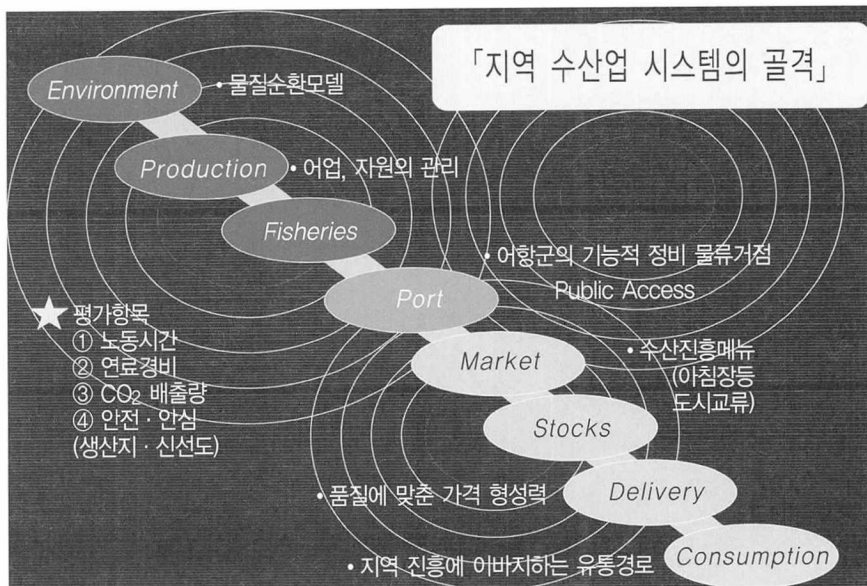
### 3. 어항공간가치의 재활용을 향하여

어항은 많은 어선이 정박하고 어획물을 양육하는 수산물 유통의 거점이다. 기능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유통을 신속화시키고 또한 환경부하를 경감시키는

것이 기대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바다와 접한 어항의 넓고 밝은 부지는 주민과 관광객에 있어서 어메니티(amenity) 공간으로서의 가치도 갖고 있다. 수산업을 핵심으로 하여 여러 가지 「사람의 일」을 재배치함으로써 공간의 가치를 크게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거기에는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

어획물과 사람, 사람과 사람사이의 연결이 생성되는 떠들썩한 어항공간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한다. 



지역수산업시스템의 골격(수산공학연구소 中村나카무라)